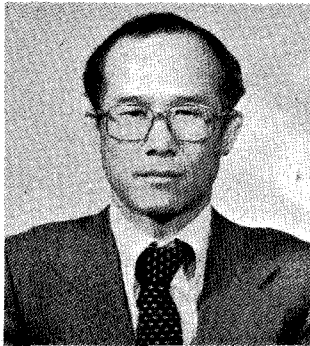


불황을 타개하는 양계인의 자세



신 정 재

과학사료공사 대표
본지 편집위원

「한국 농업의 여건변화와 발전 전략」 (이정환 KREI 1983. 12)에서 서기 2001년의 주요식품 수요전망을 보면 국민 소득의 증가로 인하여 쌀을 비롯한 곡류의 소비가 대폭 감소하는 반면, 닭고기를 비롯한 축산물의 소비는 2배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 축산업을 성장전략산업으로

럼들을 보면 「교수 스스로가 대학의 권위와 자율을 포기했다」느니 「학생문제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대학에 무슨 권위가 있느냐」는 등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알 수 없는 소리들이 꽤 많이 있어왔다.

분명한 것은 대학이 스스로의 권위를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대학내에 있지 않고 대학 밖에 있다는 사실이다. 오늘의 대학의 문제를 교수와 학생들간의 문제로만 파악하려 하는한 우리 대학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후략〉

위 문맥에서 대학이란 단어를 축산업 혹은 교수, 학생을 축산인으로만 바꾸면 바로 오늘날의 축산업 특히 육우·낙농업이 처하고 있는 현상을 그대로 표하는 것 같아 실감이 나고 있다. 근자에 들어 각 신문언론기관이 축산업 특히 육우가격에 대하여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보도해주는 것은 늦게나마 고마운 생각이 든다. '키울수록 손해만 보니 본전만 찾게 해달라' '72만원에 사 2년키워 손에 쥘 돈은 고작 60만원' '팔수도 굶길 수도 없어 난감' 한 사정을 보도하면서 '소비자 위주 가격정책이 축산기반을 뒤흔든셈'이라고 꼬집으면서, 그 이유를 정육이나 생우를 너무 많이 들여왔으며 너무 많이 들여오게 된 동기는 2~3년전의 정육값의 상승으로 물가당국이 당장의 물가안정에 급급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주무부서인 농수산부나 축산국의 의사와 관계없이, 다시말해서 당사자인 축산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소비자가 우선이란 생각만 한것이다.

지난 83년 4월 국회에서「농수산부장관은 농정을 대오각성하는 뜻에서 송아지 20만마리를 수입할 용의가 없는가」라는 질문이 나온 것은 당시 부위기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이 아
팔거
울
유행
개과

동과 같다. 당시는 돼지새끼 한마리에 500원, 1,000에도 안 팔려 산채로 물어버리는 사례까지 나왔던 우리 나라 양돈업계 역사상 최악 최대의 불경기였었다. 그때도 원인은 사육두수의 무분별한 증가와 돈육의 수입량 증가였었다.

위의 두 업계의 불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육두수의 증가와 수입육의 증가인 것이다. 사육두수의 증가는 실제 사육하는 양축가의 「육심」에서 증가된 것이고 수입육의 증가는 정부당국의 차원에서 물가를 잡으려는 「육심」에서 결정된 것이다.

그 「육심」은 축산물의 좋은 가격에서 나온 것이다. 국제가격에 비하면 송아지 한마리 가격이 성우가격보다도 비싸다든지 돼지고기 1kg 값이 국제가격의 50% 이상이나 웃돈다든지 하는데서 오는 양축가의 이익 마진이 쉽게, 그리고 비교적 많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었었기 때문이다.

어려움을 겪었던 양돈업계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육우·낙농업계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우리 양계업계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비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싫든 좋든 내년부터는 닭고기·돼지고기가 수입자유화될 예정이다. 닭고기값이 올라가고 난가가 폭등하는 주기가 타 축종보다 빠르게 나타나는 것은 기정 사실인데, 육계값이 여름에 폭등한다든지 할때 수입해야 한다는 얘기가 쉽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부인 못할 사실이다. 또 어쩔 수 없이 수출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우리 나라에서는 무역 자유화를 부르짖어야 하고, 따라서 수입자유화는 계속 확대되어야 하는데 따른 모든 산업의 국제화 물결에 대비하여야 한다.

축산물의 높은 가격만이 살길이 아니다. 높은 가격은 곧 수입수요를 자극시키며, 또한 일반 소비자들도 낮은 가격과 좋은 질의 수입 축산물편이 되며, 여론은 소비자편이다. 닭고기

계란값이 오를 때 ‘농수산부장관은 닭고기 몇 만톤을 수입할 생각이 없는가?’라고 발언할 국회의원이나 안나온다는 보장이 있는가? 그래서 수입이 된 후에 지금 쇠고기 파동 같이 ‘왜 이렇게 수입을 많이 했느냐’ 하고 사후약방문격으로 주무부서를 옥박지른들 그때는 이미 양계업자는 도산후의 일이다. 또 업계의 비중으로 보아 쇠고기와 같이 닭고기도 같게 생각해 주느냐도 문제이다.

며칠전에 한 낙농업자 세미나에서 우유와 전지분유의 재고누적 등의 해결책을 얘기해 달라고 축산당국자와 심한 대화가 있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다.

참 딱한 일이다. 더욱 딱한 것은 축산정책(일부라 하더라도)을 축산정책 당국자 임의로 못 정하는 마당에 그 당국자를 모시고 애로점을 얘기하는 낙농업자인 것이다.

2001년의 닭고기 소비는 현재의 2배, 달걀 소비는 약 3배에 이를 것으로 볼 때 양계업은 분명히 성장산업임에 틀림없다. 그러면 틀림없이 투자는 증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같이 쉽게 (꼭 쉬운 것은 아니지만)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가절감으로 국제경쟁력을 높여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사료효율, 질병예방, 종계의 능력향상 등등 피나는 노력으로 출하가격을 하향시켜야 한다.

높은가격이 살길이 아니다. 당장은 쉽겠으나 높은 가격은 바로 수입의 유발인 것이다. 지금 보는 쇠고기 파동이나 5년전의 돼지파동의 재현일 뿐이다.

양계업계도 불황에는 형님격인 양돈업계, 육우낙농업계 등 전 축산업계와 함께 축산정책 당국자에 어려운 점을 호소하기 전에 그들이 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더 높은 차원의 영향력있는 당국자를 이해시키는데 힘을 합해야 할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